

'26. 5. 29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태

○ 韓, 지방선거 대비 테러경보 '주의'로 격상...안전활동 강화

- 5.20 언론은 정부가 6·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테러 경보 단계를 5월 21일 00시부터 6월 4일 낮 12시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테러 안전활동 및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보도

※ 정부는 “경보 발령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”이라 부언

○ 파키스탄,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열차 폭탄테러로 29명 사망

- 5.24 언론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를 대상으로 폭탄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, 102명이 다쳤으며 분리주의 무장단체 BLA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BLA가 2019년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로, 지난해에도 열차 납치 테러를 감행한바 있다고 부언

○ 日, 도쿄 쇼핑몰서 최루액 추정 테러...19명 병원 이송

- 5.25 언론은 일본 도쿄의 대형 쇼핑몰 '긴자 식스'에서 한 남성이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살포한 뒤 도주해 25명이 두통·목 통증 등 호소했으며, 이 중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

※ 일본은 지난 10일에도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잇는 열차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을 살포해 승객 10여 명이 눈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 이송

○ 韓, '대통령실 폭발물 설치' 협박글 작성자 기소

- 5.26 언론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, 대통령 관저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

※ 경찰은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IP를 추적해 조사하였으나, 악성코드에 감염된 '좀비PC'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하여 기소했다 부언

유럽

○ EU, 유럽 內 IRGC 요원들이 외교관 신분으로 테러 공작 유지

- 5.21 언론은 EU의 이란 혁명수비대(IRGC)의 테러 조직 지정 이후, 외교관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며 IRGC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란 군사 무관들에 대한 제재 및 추방 권고가 제기되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이란이 유럽 內 테러 지원 및 비밀작전에 대해 거듭 부인해 왔으며, EU가 IRGC를 정치적 동기의 불법 단체로 지정한 것을 규탄했다고 부언

미주

○ 美, 종교시설 공격 잇따라..."정치인 혐오 발언이 테러 불러"

- 5.20 언론은 美 캘리포니아주 이슬람사원에서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,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의 혐오·배제 발언이 미국 내 종교시설 대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보도

※ 용의자가 온라인상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수사중이며, △ 유대교 무장 괴한트럭 돌진('26.3월), △ 가톨릭 학교 총격사건('25.8월) 등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부언

○ 美, 백악관 검문소 총격 괴한 비밀경호국에 의해 현장 사살

- 5.24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류 중인 백악관의 검문소에서 괴한이 내부를 향해 총격을 가하다 비밀경호국(SS)요원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됐으며, 도중 인근 행인 1명이 피격됐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행사장 암살 미수에 이어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테러리스트에 인질로 잡혀있던 92명 구출

- 5.26 외신은 나이지리아 軍이 보르노주 북동부에서 「보코하람」과 「ISIS-서아프리카지부(ISWAP)」등 테러단체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여 테러리스트에게 억류되었던 민간인 92명을 구출했다고 보도

※ 나이지리아 軍 언론담당자인 「우바 중령」은 이번 작전간 구조된 민간인은 92명으로 남성 52명, 여성 33명, 어린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영국, 맨체스터 '아레나' 공연장 대형 폭탄테러

- '17.5.22 영국 북부 맨체스터의 '아레나' 콘서트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2명 사망 1,017명이 부상
 - * 美 팝가수 '아리아나 그란데' 공연 관람객 약 21,000명 입장
-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범 '살만 아베디'(22세, 남)는 리비아 난민 2세로 맨체스터에서 출생한 독실한 이슬람교도 학생으로 확인
 - 테러범은 폭발물의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량의 못·볼트 같은 쇠붙이를 넣은 '네일 폭탄(Nail bomb)'을 사용
- 사건 발생 후, 영국 총리는 국가 테러위협수위를 최고 동급인 'Critical'로 격상, 군 경력이 경찰 지휘하에 공공시설 경비에 투입
 - ※ 영국 국가 테러위협수위 : Low < Moderate < Substantial < Severe < Critical
- 사후 조사 결과, 테러범이 이미 전에 두 차례 '위험인물'로 보고 되었으나, MI5가 업무과부하로 조사·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



테러 상식

< 디아스포라 급진화(Diaspora Radicalization)>

- (정의) 이주민 또는 그 후속 세대가 정착국 사회에서 겪는 소외·차별·정체성 혼란을 토대로 극단주의 이념에 흡수되어 폭력화되는 현상
- (주요특징)
 - ① 주로 16~24세, 학업 실패·무직·전과의 2세대 이민자 청년층이 급진화에 취약
 - ② 차별·소외가 누적되며 정체성 위기를 심화, 극단주의 이념이 그 출구로 작용
 - ③ 출신국도 정착국도 아닌 '끼인 세대'의 이중 소외가 급진화의 토양으로 작용
 - ④ 테러가담자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구성원으로 난민=위협은 실증적으로 부정확
- (주요사례)
 - '04.3. 스페인,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(사망 193명, 부상 2,500여 명)
 - '05.7. 영국,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(사망 52명, 부상 700여 명)
 - '15.11. 프랑스, 파리 연쇄 폭탄 테러(사망 130명, 부상 350여 명)